

설경구 “제 연기는 연민에서 시작돼요”

영화 ‘유령’ 일본 경찰 무라야마 준지 역
강도 높은 액션 일본어 연기까지 소화해
“나이 드니까 액션 연기 오히려 편해져”



“나이를 먹으니까 액션 연기가 더 편해요.”
설경구(56)는 의외로 액션 연기를 많이 한 배우다. 과거엔 ‘실미도’ ‘공공의 적’ 시리즈나 ‘해결사’ ‘타워’ ‘스파이’ 등에서, 최근엔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아차’ 같은 영화에서 강도 높은 액션을 소화했다. 그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이른바 연기와 배우들의 필모그래피와 비교하면 유독 몸을 많이 쓰는 역할을 자주 맡았다. 설경구는 이번에 선보이는 새 영화에서도 젊은 배우들도 쉽게 하기 힘들어 보이는 액션 연기를 했다. “액션은 할 때 이어서 쪽 하게 돼요. 이상하게 그런 작품을 제가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한동안 액션 연기를 안 했는데, 최근에 많이 하게 되네요.”
오는 18일 영화 ‘유령’ 개봉을 앞두고 설경구를 만났다. 그는 “액션이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재밌을 수도 있다는 걸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알게 된다”고 했다. “예전엔 힘들면 힘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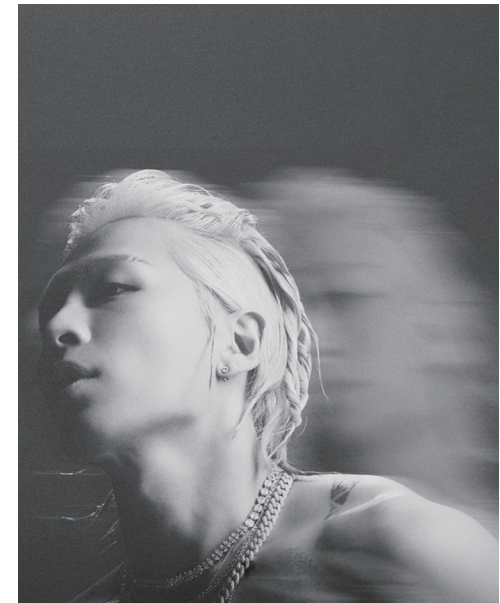
만 했어요. 표정에서도 힘든 게 묻어났고요. 근데 요샌 안 그래요.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액션을 하면 할수록 그렇더라고요.”
이해영 감독이 연출한 ‘유령’에서 조선총독부 통신과 감독관 ‘무라야마 준지’를 연기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일본 경찰이 총독부에 잠입한 독립 투쟁 조직 흑색단의 스파이를 색출하는 과정과 이에 맞서는 흑색단원들을 그린다. 준지는 스파이 용의자 5명 중 1명으로, 그를 의심하는 경호대장에게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흑색단원에게 자신이 유령이라고 주장하는 등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준지는 경호대장 ‘카이토’, 흑색단원 ‘박차경’과 수차례 몸을 맞부딪힌다. ‘유령’에서 설경구의 액션이 다른 작품과 달랐던 게 있다면 여성 배우와 주먹을 맞고 환했다는 점이다. 실제 분량만 보더라도 카이토 역의 박해수보다는 박차경 역의 이하늬와 마주해 서로 피를 보는 장면이 훨씬

길다. 그런데 설경구는 이하늬와 액션 연기가 “오히려 편했다”고 말했다. “제가 통째로 손이 때워요. 처음엔 흑시나 제가 다치게 할까봐 걱정했죠. 그런데 이하늬씨가 정말 잘 받아주더라고요. 부담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하늬씨가 표정이 항상 밝아요. 연기가 끝나면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웃죠. 때리고 나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고맙았어요.”
준지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액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었다. 일본인 역을 맡았기 때문에 유창한 일본어 연기를 해야 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설경구가 연기한 캐릭터는 한국어에 유창하다는 설정 덕분에 대사의 3분의1만 일본어로 하면 됐다는 점이다. 물론 이 또한 적은 양은 아니지만, ‘역도산’(2004)에서 일본어 연기를 이미 경험해본 게 큰 도움이 됐다. “일본어 선생님들과 계속 연습했죠. 그 방법 밖에 없으니까요. 언어는 게 참 어려워요. 현장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발음도 있거든요. 그런 건 후시 녹음도 했어요. 그래도 ‘역도산’ 때 이미 고생을 했으니까, 덜 힘들었던 건 있어요. 제 일본어가 꽤 괜찮아요.”
어렵지 않은 연기가 아니다. 액션과 일본어를 동시에 준비해야 했던 ‘유령’은 분명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그런데도 설경구는 큰 망설임 없이 이 영화에 출연하기로 했다. 그는 “준지가 입는 제복이 출연을 결정하는 데 큰 요소였다”는 의외의 답변을 내놨다. “배우들은 똑같은 연기가 반복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당연히 저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제가 연기하는 거니까 완전히 다르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제 연기가 그 전에 했던 것들과 비슷해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로 들어가서 새로운 작장을 하게 되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간 수많은 영화에 출연했지만, 설경구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출연하는 건 ‘유령’이 처음이다.
설경구는 그 연기하는 모든 캐릭터에 연민을 갖고 있다고 했다. 연민이 캐릭터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였다. 설정 그 인물이 일제강점기에 총독부에서 일하는 일본인인 준지라고 해도 다르지 않았다. “만약 연가 준지를 ‘그냥 나쁜놈’으로 여긴다면 연기하기가 어렵겠소.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생각해보는 게 연기고요, 그때 연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빅뱅 태양, ‘지방시 글로벌 앰버서더’ 선정

‘한국인 남성’ 최초 선정

그룹 ‘빅뱅’ 태양이 ‘지방시’ 2023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됐다.
18일 지방시는 “태양이 한국인 남성 최초로 지방시 하우스(The House of Givenchy) 브랜드 앰버서더가 됐다”고 밝혔다.
지방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매튜 M. 윌리엄스는 “태양은 여러 방면으로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진정성 있고 새롭게 시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아티스트이며, 이는 지방시의 심미적인 아름다움과 완벽하게 어울린다”라며 태양을 환영했다.
태양은 “새로운 챌린저를 지방시와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 오래전부터 많은 영감을 준 브랜드 중 하나라 의미가 더 특별하다. 앞으로 멋진 일들을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고 밝혔다.
태양은 지난 13일 그룹 ‘방탄소년단’ 지민이 참여한 디지털 싱글 ‘바이브(VIBE)’를 발매



하며 컴백했다. ‘바이브’는 발매 직후 아이튠즈 60개국 차트 1위에 올랐고 뮤직비디오는 하루 만에 2000만 뷰를 돌파했다.

엔사인, 日 제프투어…정식 데뷔 전 그룹 최초



‘청춘스타’ 우승팀 ‘엔사인(n.SSign)’이 정식 데뷔 전 그룹 최초로 제프투어(ZeppTour)를

진행한다.
18일 소속사 n.C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엔사인이 오는 2월 25일부터 일본 주요 5개 도시를 도는 제프투어를 개최한다.
엔사인은 지난해 방송된 채널A 오디션 프로그램 ‘청춘스타’ 최종 우승팀으로, 정식 데뷔 전 최초로 제프투어를 진행한다.
이들은 오는 2월 25일 나고야를 시작으로, 26일 오사카, 3월 4일 삿포로, 21일 후쿠오카 마지막으로 25~26일 도쿄에서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엔사인의 ‘청춘스타’ 우승자 스페셜 앨범이 일본 아이튠즈 케이팝 앨범 차트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개최된 “n.CH월드 라이브 2022” 인 재팬에서 스페셜 기프트 앨범의 ‘우 우(Woo Woo) (이게 말이 돼?)’와 ‘너만 빼고 다 있어(Have All I Except You)’ 무대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후 엔사인의 ‘우 우’는 일본에서 한정판 플래트 앨범으로 판매, 빠른 속도로 품절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엔사인은 최근 서울 윤당아트홀에서 첫 국내 팬미팅 ‘네트 오브 스타 싸인’을 개최하며 정식 데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뉴진스 ‘디토’, 빌보드 ‘핫100’ 96위 진입…K팝 4세대 처음

데뷔 6개월 만에 성과…K팝 그룹 다섯 번째 기염

국내외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그룹 ‘뉴진스(New Jeans)’가 K팝 4세대 그룹 중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17일(현지시간) 빌보드 트위터 등에 따르면, 뉴진스의 첫 싱글 ‘OMG’의 선공개곡인 ‘디토(Ditto)’는 21일 자 ‘핫100’에서 96위로 진입했다.
지난 8월 데뷔 음반을 내놓은 지 반 년만의 성과다. 특히 ‘디토’는 지난달 19일 선보인 곡으로, 공개 직후의 ‘반짝 효과’가 아닌 입소문을 타고 스트리밍 건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더 특기할 만하다.
앞서 ‘디토’는 지난 14일 자 빌보드 ‘버블링 언더 핫 100’(1월14일 자)에서 8위를 차지했다. ‘핫 100’에 아쉽게 진입하지 못한 25위까지 순위 차트인데 ‘디토’의 기세가 한창 올라가는 중간에 집계된 차트라 이번 주 ‘핫100’ 진입이 확실시됐다.
빌보드 차트보다 해외 가수에게 더 문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 오피셜 차트의 최근 싱글 톱100 차트에 ‘디토’가 9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보이 그룹, 걸그룹을 통틀어 K팝 4세대 그룹 중 처음으로 ‘핫100’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K팝 4세대 보이그룹 중 ‘스트레이 키즈’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두 번 1위를 차지했다. 4세대 걸그룹 중에선 ‘에스파’와 ‘잇지(ITZY)’가 ‘빌보드 200’에서 각각 3위와 8위를 찍었다. 뉴진스와 하이브 레이블즈 내에서 선의 경쟁을 하고 있는 ‘레세라핌(LESSERAFIM)’은 ‘빌보드200’에 14

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K팝 음반이 ‘빌보드 200’을 장악하고 있지만 북미 시장 내 대중적인 풀뿌리 인기가 반영되는 ‘핫100’에서 꾸준히 높은 성적을 거두는 K팝 팀은 K팝 3세대 대표그룹인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BLACKPINK)밖에 없다. ‘핫 100’은 피치컬싱글 및 디지털 음원 판매량, 스트리밍 수치, 라디오 에어플레이 수치, 유튜브 조회수 등을 합산해 노래의 성적을 총망라한다. 최근 RM의 솔로곡 ‘플룻놀이’를 비롯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 모두 솔로곡 또는 피쳐링곡으로 ‘핫100’에 진입했다. 블랙핑크 역시 로제·리사 등 멤버들 중 절반이 솔로로 ‘핫100’에 들어갔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제외하고 K팝 가수 중 ‘핫100’ 안에 진입한 팀은 ‘원더걸스’, 싸이, ‘2NE1’ 출신 씨엘, ‘트와이스’밖에 없다. 그런데 뉴진스가 데뷔 반년 만에 ‘핫100’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 특히 K팝 팀으로 따지면 다섯 번째다.
하이브 레이블즈라는 배경도 일부 있었지만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기획력, 다섯 멤버들의 소화력에 세련된 곡 자체가 빛을 발한 경우다.
‘디토’는 뉴진스가 지난해 여름 내놓은 첫 EP ‘뉴진스’ 트리플 타이틀곡 중 한곡인 ‘어텐션’의 겨울 버전이다. ‘어텐션’이 청량하면서 아련했다면, ‘디토’는 청량하면서 애뜻하다.
‘디토’는 미국 볼티모어 클럽 댄스 뮤직 장르를 재해석한 곡인데 미국 DJ 겸 프로듀서 로드리(Rod Lee)의 ‘댄스 마이 페인 어웨이(Dance My Pain Away)’ 등으로 대표되는 볼티모어 댄



스 뮤직은 터프한 볼티모어 지역에서 생겨난 특유의 아련함과 애뜻한 두근거림이 있다. ‘디토’는 청춘의 혼란스러움을 슬픔이 배인 아련함으로 승화한다. ‘어텐션’, ‘디토’ 모두 프로듀서 겸 DJ 이오공(250)이 중심이 돼 만들었다. 애뜻한 가사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이 방면에 선수들이 싱어송라이터 김정지·마·우효의 합작품이다.
특히 뉴진스와 팬덤 ‘버니즈’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뮤직비디오는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연출했는데 몽글몽글한 ‘Y2K’(19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유행한 밀레니얼) 감성으로 출렁거리는 프로듀서 민 대표의 감각이 묻어난다. 도서관, 캠코더, 자전거 등의 오브제는 ‘러브 레터’, ‘하나와 앨리스’, ‘릴리슈의 모든 것’ 등으로 유명한 일본 감독 이와이 슌지의 영향도 느껴진다.
곡과 뮤직비디오의 완성도로 인해 대중뿐만 아니라 스타들도 ‘디토’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미국 배우 아요 에데비리(Ayo Edebiri)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제80회 골든글로브(Golden Globes)’ 레드카펫에 참석한 미국 배우 아요 에데비리는 빌보드와의 인터뷰에서 “‘디토’를 즐겨듣는다”고 ‘팬심’을 고백했다.

본격 복수…‘더 글로리’ 파트2 3월 10일 공개

김은숙 작가 “사이다맛, 마라맛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가 3월10일 공개된다.
넷플릭스는 18일 이렇게 밝히며 파트2를 예상해볼 수 있는 스타 이미지를 함께 공개했다. 파트1과 마찬가지로 8회 분량인 파트2에선 주인공 ‘문동은’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은숙 작가는 “사이다 맛, 마라맛이 파트2에 집중돼 있다”고 했고, 안길호 감독은 “본격적으로 동등과 연정의 싸움이 시작되고 가해자들이 응징당하는 이야기가 다이나믹하게, 눈을 땔 수 없이 펼쳐진다”고 했다.
‘더 글로리’는 고등학교 시절 극심한 학교 폭력을 당한 뒤 자퇴한 문동은이 초등학교 교사가 돼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배우 송혜교가 문동은을 연기하고, 임지연·이도현·염혜란·박성훈·정성일·김희아·차주영·김경우 등이 출연한다. 극본을 맡은 김은숙



작가는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 ‘태양의 후예’ 등을 썼다.
지난해 12월30일에 공개된 ‘더 글로리’ 파트1은 넷플릭스 누적 시청 시간 1억4800만 시간을 기록 중이며, 1월9~15일 비영어 TV 부문 2위(4011만 시간)에 올라 있다.

사랑꾼 최수종·도경완 ‘전라도 여행’



텔런트 최수종과 아나운서 도경완이 낭만 여행을 떠난다.

오는 21~23일 SBS 방송 예정
SBS TV 설 특집 ‘떠나보면 알 거야’는 사랑꾼 최수종·도경완의 여행기다. 가장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가족에게 외박을 허락 받는다. 2박3일간 전라남도 순천, 강진, 영광을 여행하며 자연을 만끽하고 여유를 즐긴다. 울창한 숲길, 아름다운 노을, 광활한 갯벌 등을 배경 삼아 현지 맛에 취하고 술잔도 기울인다.
총 3부작이다. 21~23일 오전 8시30분 방송.